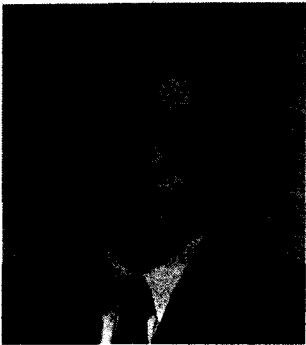


'90年度 國內外經濟 어떻게 變할까?

- 격변하는 경제 적절히 대응해야 -



宋 基 澈
(高麗大教授·經博)

目 次

1. 90年代의 意義
2. 經濟開發의 成果와 與件 變化
3. 90年代의 世界經濟
4. 90年代의 韓國經濟
5. 90年代의 政策課題와 對應

1. 90年代의 意義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89년을 보내고 또 다시 더욱 더 다사다난할 것이 예상되는 90년을 맞게 된다. 이 90년은 다른 해와는 달리 세가지로 곱배기로 뜻이 많은 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는 89년을 보낸면서 이것 저것 반성하고 새로 맞는 90년의 이런저런 구상과 계획을 세우는 늘 예년과 같은 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예년의 송구영신이 아니라 80년대를 보내고 새롭게 90년대를 맞는다는 지난 날의 10년의 80년대를 반성하고 앞으로 맞을 10년의 90년대를 구상해야 하는 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1900년대인 20세기를 보내고 앞으로의 2000년대인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새로운 구상을 아울러 해야 한다는 가슴 벅차고, 몇 곱절의 뜻을 지니고 있는 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있는 90년을 바라 보면서 앞으로 10년의 90년대 그리고 앞으로 100년의 2000년대까지를 멀리 내다보면서 정치·사회·문화·경제·기술등이 국제적 국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를 깊이 음미한 다음에 이들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자세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대한 변화예측을 제대로 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미리 마련해서 미리 미리 사전에 손을 제대로 쓰느냐 여부에 따라서 90년, 더 나아가 90년대 더욱더 먼 앞날인 2000년대를 내다보는 우리의 위상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에서 90년은 세가지 곱배기로 중요한 뜻이 있는 해인데 과연 그런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혹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자

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적지 않으며, 이에 대한 냉철하고도 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經濟開發 成果와 與件變化

반만년의 빈곤을 씻고 우리도 선진국 못지 않게 잘 살아 보자고 경제개발에 착수를 시작한 것은 누가 무어니 무어니 해도 1961년의 5·16혁명 이후인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후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또 그 성과가 많은 경제음지를 가져와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 오기도 했지만 눈부신 경제발전을 한 것이 현실로서, 한 때는 아시아의 네마리 용의 선두주자로 까지 불리어 지기도 했었다. 지금 그의 경제성과의 결과를 보면 표1과 같다. 이어서 보면 우선 국민소득을 보면 61년의 21억달러에서 87년엔 1,186억달러로 56.5배가 늘어났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61년의 82달러에서 87년에는 2,826달러로 34.5배가 늘어났고 89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달러에 이를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보는 경우에도 현저한 산업의 고도화를 이룩했으니 광공업부가 가치비중이 61년에는 15.5%이던 것이 87년에는 31.5%로 약 2배가 늘어났으며, 중화학제품수출비중도 61년의 4.7%에서 87년에는 50.6%로 10.8배나 증가해서 중화학공업비중이 늘어났음이

〈表 1〉 경제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내역	년도별		B/A (배)
	61년(A)	87년(B)	
GNP 규모(경상,억불)	21	1,186	56.5
광공업부가치비중(%)	15.5	31.5	2.0
중화학제품수출비중(%)	4.7	50.6	10.8
1인당국민소득(달러)	82	2,826	34.5

두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요경제지표의 하나인 물가와 국제수지상황을 보면 표2와 같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지난 날 우리경제의 취약점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와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상황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표2에서 보면 물가는 소비자물가이지만 79년에 18.2%, 80년엔 28.7%로 피크를 이루고, 82년에 7.1%로 떨어지더니 84년부터는 밑의 한자리 수인 2.3%, 86년 2.8%, 87년 3.0%로 되다가 88년에는 7.1%로 급상승했다. 한편 국제수지에 있어서도 79년에 41억달러의 적자 80년엔 53억달러 82년에 26억달러 84년에 13억달러와 같이 만성적자를 보이더니 86년에는 흑자로 반전 86년에는 46억달러로흑자원년을 이루었고, 87년에는 98억달러 88년에는 142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난다.

이리하여 고성장, 저물가, 고무역수지흑자현상을 보이는 좋은 경제현상을 보인 것이 86년 이후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表 2〉 물가안정 기반의 정착과 국제수지 흑자전환

내역	년도별						
	79	80	82	84	86	87	88
소비자물가상승율(%)	18.2	28.7	7.1	2.3	2.8	3.0	7.1
경 상 수 지(억불)	△41.5	△53.2	△26.5	△13.7	46.2	98.5	142

주: △표는 적자를 의미함

이리하여 세계인이 바라보는 한국경제 대한 시각은 다음과 같았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무서운 경쟁 상대국이며, 자동차, 반도체 등 자본·기술집약적인 상품을 선진제국에 수출하는 세계유수의 교역대국이고, 세계 4위의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외채감축에 성공한 나라로서, 세계인의 대제전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성숙한 나라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높이 평가되었던 우리 경제가 89년부터 급진적하 한국경제의 발전도 이젠 정치불안 사회불안, 특히 노사분규로 국제적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 이제 용은커녕「버려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소리까지 나오게끔 된 기막힌 상황으로 까지 오게 되었다.

도리켜 보건데 우리 경제의 지난 날을 돌아 보면, 우리 경제는 첫 단계로서 60년대~70년대 개발의 초기 단계로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의 발전 과정으로, 저저축, 고투자, 고성장으로 적자 경제와 외채 의존적 성장을 보였던 단계로서 물불가지지 않고 열심이 뛰었던 단계라 할 수도 있다.

이어 다음 단계는 80년대의 개발 성숙 단계로서 적자경제에서 흑자경제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선두주자로 부상한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80년대에서 90년대로 전환하는 89년과 90년에는 여러가지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는 단계에 오게 되었다. 하여간 90년대는 선진국으로의 진입단계로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저축, 고투자, 고성장으로 흑자경제의 정착과 자립경제의 달성과 기술 혁신의 신시대 개척으로 채권국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다.

3. 90年代의 世界經濟

90년대의 세계경제를 내다보는 경우 여러

세계경제예측기관에 따라서 그 예측이 각양 각색으로 또 현실적으로 예측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잘 맞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예측기관인 WEF의 세계경제 전망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經濟成長을 보건데, 89년중 先進國 經濟는 美國經濟가 둔화되는 반면 日本 및 西유럽 經濟는 好調勢를 보일 것이나 90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成長率이 저하될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다.

89년중 開途國 經濟는 ASEAN國家들과 아랍 石油輸出國들의 經濟成長에 힘입어 安定成長을 지속할 것이며 90년에는 成長率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시아 NICs 는 賃金上昇과 中國事態의 영향 등으로 成長勢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예측기관에 의한 89년과 90년 그리고 91년의 경제성장률예측을 보면 표3과 같이 되어

〈表 3〉 經濟成長率 展望 (단위:%)

국가별	년도별			
	88	89	90	91
全 世 界	4.0	3.5(3.2)	3.1 (2.9)	3.3
先 進 國	4.1	3.5(3.2)	2.5 (2.2)	2.9
美 國	4.0	2.9(3.1)	2.2 (1.7)	3.0
日 本	5.9	5.4(4.4)	4.0 (3.3)	3.2
西 유럽	3.5	3.3(3.0)	2.4 (2.4)	2.6
西 獨	3.5	3.7(3.1)	2.3 (2.1)	1.9
英 國	3.4	3.2(2.6)	2.7 (2.3)	3.0
프 랑 스	3.7	2.6(3.0)	2.2 (2.6)	2.3
開 途 國	2.9	3.2(2.6)	4.2 (4.2)	4.6
아시아NICs	11.1	6.9(6.8)	5.7 (5.3)	7.5
韓 國	11.3	7.1(7.0)	6.1 (5.5)	7.0
台 灣	6.8	7.2(6.8)	5.4 (5.2)	8.8
홍 콩	6.9	5.3(5.8)	3.5 (4.3)	6.8
싱가포르	11.1	9.4(8.2)	8.9 (6.4)	7.2

() 안에는 89. 4월 展望值임

있다. 이어서 보면 우선 전세계의 경제성장율은 89년의 3.5%(혹은 3.2%)에서 떨어져 90년에는 3.1(혹은 2.9%)로 되리라 한다.

선진국은 89년의 3.5(3.2%)에서 90년에는 2.5(2.2%)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89년의 7.1(7.0%)에서 90년에는 6.1(5.5%)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세계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세계교역과 경상수지상황을 보면 표4와 같다.

89년중 世界交易은 지난 해와 같은 8.5%의 伸張率을 보일 것이나 90년에는 經濟成長 둔화 및 貿易블록화 深化 등으로 3.4% 수준까지 크게 저하될 전망이다. 그리고 主要先進國의 國際收支 不均衡은 89년중에는 다소 개선될 것이나 90년에는 다시 확대될 것을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의 주요경제지표인 국제금리와 환율을 보면 표5와 같다.

美國金利는 景氣鈍化로 90년 上半期까지 下落 勢를 보이다가 90년 下半期부터 景氣回復 期待로 上昇勢로 反轉이 예상되며, 美달러貨는 主要 國通貨에 대해 89년 4/4분기 이후 약세로 反轉 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

지금 국제경제환경을 보건데, 동서화해 및 사회주의 국가의 개발 경제정책 지속으로, 동서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드와 선진국간의 원활한

〈表 4〉 世界交易 및 國際收支 展望

국개별	년도별			
	88	89	90	91
世界交易量(%)	8.5	8.5	3.4	4.1
經常收支(억\$)				
美 國	-1,353	-1,196	-1,240	-1,326
日 本	793	775	805	713
西 洋 諸 國	142	82	338	482
아시아 NICs	282	198	200	235

정책 협조로 환율의 안정적 변동과 흑자국의 내수 확대 노력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보호무역적 조치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며, EC지역의 블록화 추세 강화로 수출여건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은 뻔하다.

〈表 5〉 金利 및 換率 展望(期末基準)

	89.6末	12 末	90.6末	12 末
金利* TB(3개월, %)	8.4	7.8	7.3	7.7
CD(3개월, %)	9.6	9.1	8.6	9.7
換率 ¥ / US \$	143.8	126.0	122.0	118.0
DM / US \$	1,950	1,800	1,760	1,720
US \$ / £	1,554	1,667	1,662	1,657
₩ / US \$**	666.7	651.8	641.7	632.0
NT\$ / US\$**	25.99	24.85	23.95	22.85

*該當月을 포함한 分期平均 基準 **月中平均 基準

4. 90년의 韓國經濟

90년의 한국경제를 내다 봄에 앞서서 우리는 권위있는 한국은행의 89년의 경제전망과 더 나아가서 90년 91년 92년까지의 예측한 것을 보면 표6과 같다. 이어서 보면 89년의 경제성장율을 보면 7.5%에서 90년도 역시 7.5%로 쪽 내다보고 있다. 물론 이에측은 88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높게 평가 되고 있어서 그들 여러 예측치가 낮게 평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0년도의 우리 경제예측도 낮게 평가 되면서 각기관 마다 각양각색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 표7과 같다. 이어서 보면 경제성장률은 7.4%에서 6.0%까지 차이가 있으며, 경상수지흑자로 53억달러에서 13억달러, 수출액도 최고 725억달러에서 670억달러,

〈表 6〉 한국은행의 국내경제 전망 (전년동기비, %)

내역 \ 연도별	88	89			90	91	92
		상반기	하반기	년 간			
민간소비	9.6	10.0	9.2	9.5	7.5	7.5	7.5
고정투자 (건설)	11.8 (13.3)	12.5 (16.1)	15.0 (16.0)	14.0 (16.0)	9.0 —	8.0 —	8.0 —
(설비)	(10.1)	(8.4)	(13.5)	(11.0)	—	—	—
상품수출	14.7	△ 3.4	9.8	3.5	7.0	7.0	7.0
상품수입	11.8	11.2	17.5	14.5	9.0	8.0	8.0
G N P	12.2	7.6	7.5	7.5	7.5	7.5	7.5
경상수지 (억달러)	142	30	50	80	80	70	55
무역수지 (수출·통관)	114 (607)	25 (295)	45 (385)	70 (680)	70 (770)	60 (870)	50 (975)
(수입·통관)	(518)	(292)	(348)	(640)	(741)	(850)	(975)
명목임금	19.6	20.0	20.0	20.0	10.0	10.0	10.0
소비자물가	7.2	3.0	5.0	5.0	5.0	5.0	5.0
통화량	18.8	19.0	17.0	18	18	18	18
실업률	2.5	3.0	3.0	3.3	3.0	3.5	3.6

(* 임금이 10%선에서 안정됐을 때의 전망임. 명목임금은 제조업 분야를 평균함)

소비자물가 상승율도 6.8%에서 5.0%로 환율은 695원에서 630원으로, 임금인상률도 15%서 10%사이로 내다보고 있다.

이리 본다면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내다보건데, 두자리 숫자의 경제성장 시대에서 한자리 숫자의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니 수출 감소, 수입증대에서 온 것이다.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로 성장의 잠재력이 위축되고 있는데 해외 투자로 증대하고는 있으나, 물가불안 요소가 잠재해 있으며 농·축산물 가격 불안, 서비스 요금의 상승과 고임금, 고환율 체제의 지속으로

국제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 경제의 대내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3저의 시대에서 임금인상, 원화절상,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같은 3고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해외부문 통화 증발, 임금인상, 부동산투기 등 인플레이 압력이 증대하고 있다.

5공화국 비리척결, 통일문제, 노사분규 등으로 정치·사회적 동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교역증대로 북방정책이 본격화되고,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못하고 사치풍조등으로 것들고 있다고 보여진다.

〈表 7〉

기관별 90년도 경제전망

기 관 명	GNP 성장율	경상수지 흑자(억\$)	수 출 (억 \$)	소비자물가 상 승 률	환 율(원) —	임 금 인상률
K D I	7.4%	50.0	685.0	5.5%	—	12.0%
K I E T	7.0%	50.0	694.0	—	—	—
全 經 聯	6.5%	43.2	693.0	6.8%	670~680	—
貿 協	—	13.0	670.0	—	—	10.0%
三星 경제 研	6.0%	21.0	675.0	6.0%	685(연말)	12.0%
럭키금성 研	6.5%	36.0	690.0	6.8%	695(연말)	15.0%
大 信 研	7.2%	50.0	725.0	5.0%	670	10.0%
韓 信 研	7.2%	45.0	700.0	5.0%	650	15.0%
現 代 研	6.9%	40.	690.0	5.1%	670	—
大 宇 研	6.8%	20.0	680.0	—	—	—
한국신용평가	7.1%	53.0	703.0	5.0%	630	—

5. 90年代의 政策課題와 對應

첫째는 국내외에 걸친 경쟁력 강화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수출이 급속히 감퇴되어 수출량과 수출액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가고 있는데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 인류에 꼭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되, 그것이 우리나라 혹은 우리나라 기업만이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값싸고 좋은 물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경쟁력이 유지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국제경쟁력이 뚝 떨어져 있으니 그것은 87년의 6·29선언 이후의 노사분규로 3년째로 임금이 급상승해서 고임금이 되고 노사분규로 공급차질이 와서 신용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노동량이 휴일증가와 노동시간의 단축등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이 떨어져서 노동기강이 해이되어

불량품생산이 늘어나 노동생산성이 질적 양적 양쪽면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환율조정, 금리인하 각종 수속절차의 간소화 등등의 할일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는 노사간의 화합경제의 확립이 요망된다. 모든 조직은 크게는 국가와 민족 적게는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은 인간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들 구성원들 사이의 화합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기업이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은 그들 구성원들의 불협화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합경제가 절대로 요망된다.

생산성 임금제를 통하여 분배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하며, 학력간, 직종간 임금격차 해소와 저임금지대의 해소가 시급하다. 경영성과의 일정 부분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사는 물가안정을

통해 실질임금을 높인다는 인식에 투철해야 하고, 지나친 요구·응수를 지양하고 노·사간 자율교섭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노사쌍방간의 불협화음은 자신들의 불행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 대국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세째로는 균형경제로의 회복이 절실하다. 우리 경제는 다른 선진국들이 300년 혹은 200년 또는 100년 걸려서 한 것을 30년 이내에 해치우다 보니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 외형 모양을 갖추었으나, 내실적으로 볼 때에는 영성한 점이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경제성장 정책과 특정부문의 불균형성장 정책에서 성장의 혜택이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에 고루 파급되는 균형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업과 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서울과 지방도시등의 균형성장이 요구된다.

이를 여러 계층과 각계각층간의 불균형에서 오는 소외와 갈등이 적지 않은 마찰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가능한 정도로 격차를 좁이는 균형경제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네째로는 정의사회 즉 정의경제의 구현에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개발 초기의 절대적 빈곤의 문제에서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사회의 중심과제로 등장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와 지하경제의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의 팽배로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짧은 사이에 경제개발이 되었고, 이 사이에 정경유착, 세금혜택 권력의 비호 등 적지 않은 부정에 의해서 축적을 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정의의 구현이 그리 쉬운 일도 아니며 또

지금까지 축적된 그것이 일조일석에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조세정책의 강화로 왜곡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하여간 모든 정책 방향이 경제도덕성 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로는 복지경제의 추구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외채부담으로 인하여 투자가 수출산업 부문에 치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생활 향상에 직결되는 내수부문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제 실시, 전국민의 의료보험화, 무주택서민을 위한 대량의 공공주택 건설 등이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부담능력 이상으로 복지경제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팽창되어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등장하게도 된다.

지난 날의 우리 경제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었기 때문에 사회개발분야가 가볍게 다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정부도 이 분야에 착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이제는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고쳐 사회개발분야를 역점 개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선진국에서의 복지병등을 감안해서 일하는 것이 노는것 보다는 득이 되는 방향으로 복지경제의 구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섯째는 자율·개방경제의 확대이다. 정부주도형 경제에서 민간주도형 경제로 조속한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비효율적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대외개방 제약요인이었던 경상수지 적자의 해소에 따라 대외 개방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통상마찰의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혜택을 주어야 하는 쌍무적 관계로 전환되어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 세계경제는 부분적으로 보호주의적 경향

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 자유화 국제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세계의 대세이다. 개방화 국제화 되는 경제에 있어서 우리도 이에 발을 맞추어 가되, 이런 자유경제, 국제경제의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제체질 강화가 요망된다.

일곱째는 내실경제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흑자시대에는 높은 성장과 외채감소의 동시달성이 가능하다. 투자재원의 자력조달(국제수지 흑자)로 고투자→고성장→고저축→흑자 확대와 채권국 유지 확대가 가능하다.

이제까지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수입억제 및 환율인상이 불가안정목표와 상충되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억제의 확대와 환율안정으로 불가안정→대의경쟁력 향상→수출증가와 국제수지 흑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저임금시대에서 고임금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경제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흑자시대에 여력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흑자경제시대의 도래를 89년으로 잡았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 89년의 우리 경제의 재약화로 흑자시대 도래는 꿈으로 사라지고 90년이나 그의 도래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89년의 우리 경제의 국제수지흑자가 아주 격감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간 흑자커녕 적자로 되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경제의 내실화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주기 까지도 한다.

自生力의 培養

그러면 우리 경제는 방도가 없느냐 하면 있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선 우리

경제의 실상을 심각, 진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위기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히 정부일각 그리고 재야에서는 우리 경제위기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어서 정책실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노사분규를 조장하고 있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모든 것은 화합이 기본인데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기업의 노사가 그리고 가정 모두가 화합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마음만 가진다면 어려움의 극복은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본 기술 시장없이 이런 정도의 경제를 가져온 것도 우리 국민들이 단합 화합한 바탕위에서 이루어 왔음에 비추어 그의 재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세째는 우리 모두는 지금 모두가 어려움이 너 때문이어라고 해서 타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이제는 나 때문이어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 우리들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자세로 가지 않으면 아니된다.

네째로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경제의 어려움을 자기자신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의 소생의 길을 네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처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약화된 경쟁력을 높이는 일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과 품질 그리고 거래조건에 있어서 약화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만이 미국이 살 수 있는 길이라 했는데 이 경쟁력배양이야말로 90년대 한국경제가 해야할 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떨어져 가고 있는 저축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한다. 과소비뿐만 아니라 그것도 외국제품의 과소비로 저축률이 푹 떨어지고 크레디트·카드를 가지고 자손것까지 미리 당겨 쓰고 있는 낮은 저축풍토를 개선해서 높은 저축 풍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견 역시 우리

한국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투자로 비생산적 투자, 돈장난이라 할 수 있는 「財테크」에 주력하고 있어서 제조업 분야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산업공동화를 빚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조업의 뒷받침 없는 경제는 사상누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역시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산업공동화가 되어가는 한국경제 그리고 「財테크」에만 주력하는 한국경제는 문제

가 아닐 수 없으며 활발한 투자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업풍토, 국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천하지대본이라 할진데 미 국민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데 이걸 역시 미국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노동의 량과 질이 저하하는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없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으나 노동기강 노동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